

소멸위기 호남...상생발전 위한 획기적 정부 지원 시급

광주전남기자협회·전북기자협회 공동 ‘호남공약 발표회’ 개최
서남권 고속철도망 건설·메가시티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 담아
AI 모델시티·전남 국립의대·하계 올림픽 기반 구축 등 제안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재정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홀대받고 소외됐던 호남권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광주·전남·전북이 단합해 미래 핵심 성장 방안을 마련, 새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무관심과 의지 부족으로 소멸 위기에 내몰린 광주·전남·전북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획기적인 인식 전환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오후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광주전남기자협회, 전북기자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호남공약 발표회’ 참석자들은 국토균형발전과 호남 성장 기반 확보에 필요한 지역 핵심 현안들을 공유하면서 강력한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행사는 광주전남기자협회와 전북기자협회 공동 주최로, 광주·전남·전북연구원, 대혁신호남포럼 창립준비위원회, (사)좋은정책포럼 등이 공동 주관했다. 소멸 위기에 처한 호남의 미래 발전 방안을 새 정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호남권역 내 연구기관과 민간정책포럼, 지역기자협회 등이 공동으로 광역 공약 발표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표회는 국토 서남권 고속철도망 건설과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을 담은 호남권 광역 공약 발표에 이어 전북 핵심 공약, 광주 핵심 공약, 전남 핵심 공약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서·남해안 (신) 관광벨트 조성=송경웅 대혁신호남포럼 이사장은 호남 경제동맹의 조속한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군산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

(110km) 건설사업과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잇는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망 구축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해안철도 건설사업은 오는 2035년까지 국비 4조 7919억원을 들여 목포-무안공항-함평-영광-고창-새만금-군산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서·남해안 관광산업을 견인하면서 장래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국가철도망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해안철도 건설로 기존 군산-목포 간 거리가 3시간 10분(190분)에서 98분(1시간 38분)으로 92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 등은 지난 2016년부터 국가철도망계획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요청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망은 오는 2035년까지 10조 4383억원을 들여 고흥-광주-전주-세종까지 210.7km에 이르는 호남권을 잇는 광역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다.

고흥-대전-전주로 이어지는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를 잇는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오는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에 나선 전북도와와의 접근성 강화 및 지역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담당할 전담부서 확대=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합, 부총리급 조직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 중심 개발 정책 등으로 수도권 집중과 정책이 여전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광주전남기자협회와 전북기자협회 공동 주최로 28일 오후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호남공약 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연구원 제공〉

지적이 잇따랐다.

참석자들은 이런 점을 감안, 지역균형정책·인구활력지원·산업혁신지원·지방협력조정·정책기획평가·국제협력 등을 담당할 조직을 부총리급으로 확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철도·도로·항만·공항 등 기반 시설에서 가장 뒤떨어진 호남권역에 대한 집중적 공공 투자를 통한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송경웅 대혁신호남포럼 이사장은 “3개 지자체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면

새 정부를 향해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전남·전북 성장 동력 공약도=이날 발표회에서는 특히 오는 20036년 세계 하계 올림픽의 전북 유치를 위한 차기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할 경우 오는 2036년까지 경기시설 인프라, 선수촌 및 미디어촌 등을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성공적인 대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또 다음 정부에서 실현되어야 할 5대 핵심 공약을 각각 선정, 발표했다.

광주의 경우 ▲AI 모델 시티 조성 ▲5·18 정신헌법 전문 수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정 설립 등을 포함했고 전남에서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 ▲석유화학·철강 대전환 메가프로젝트 추진 ▲무안공항 대표 관문공항 육성 등을 제안했다.

전북도는 ▲하계 올림픽 글로벌 연계기반 구축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 조성 ▲미래 국가 성장의 전초기지, 새만금 구축 등을 공약에 담았다.

한편, ‘호남공약발표회’는 나주·순천에 이어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전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한 번 더 열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SKT 해킹 후폭풍...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에 집단소송도

국회 청원·소송 카페 개설

SK텔레콤 서버 해킹에 따른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 피해대책을 촉구했고, 시민들은 집단소송에 나섰다.

28일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일동(최민희·김현·김우영·노종면·박민규·이정현·이훈기·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이해민)은 SK텔레콤과 정부에 대해 “국민 불안 방지 말고 실질적 피해 대책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국민들은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휴대폰 복제나 금융사기, 명의도용 피해로 이어질지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은 안내와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며

서 “SK텔레콤이 전 고객을 대상으로 유심(USIM) 교체를 약속했지만 보유한 유심은 100만 개에 불과하며 5월 말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물량도 500만 개에 그쳐 2300만 명의 가입자 전체가 빠른 시일 내에 유심을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유심 부족 사태가 방지된다면 대규모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SK텔레콤이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어긴 것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역시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이 늦은 점은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들은 SK텔레콤측에 실질적 대책으로 ‘찾아가는 유심교체·택배 유심교체 운영’, ‘조속한 유심 재고 확보’, ‘위약금 면제로 자유로운 번호이동 허용’, ‘고객 이동 방지를 위한 장려금 지원 금지’ 등을 요구했다.

정부에게는 ‘즉각적인 개인정보 보호·감독 조치’, ‘유출 사건의 원인에 대한 투명한 공개’, ‘이진숙 방통위원장 즉각 국귀 후 사태 수습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와는 별개로 일부 가입자들은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가입자 4명은 이날 오후 SK텔레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형 로펌에서는 ‘SK텔레콤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안내’라는 공지를 걸고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으고 있다.

전날에는 포털사이트에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카페’가 개설됐고, 28일 오후 6시경 2만 7153명이 가입했다.

이외에도 ‘SKT 유심 해킹 공동대응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돼 국민동의 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SKT 유심칩 교체 첫 날

▶1면에서 계속

한 대리점 직원은 “오늘은 200개 재고가 있었지만, 내일은 몇 개 올 지조차 모르니 유심 교체 예약도 못 받고 있다”며 “유심칩을 교환하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유심보호 서비스를 먼저 신청한 후, 재고가 쌓이는 5월 초, 중순에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 것조차 어려워 대리점을 찾는 이들도 많았다. 온라인 가입 신청자가 수십만명이 몰리면서 홈페이지가 먹통이 돼 가입 신청 자체를 못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박은성(27)씨는 “온라인으로 가입하려고 했지

만 대기자 23만명, 65시간이 남았다고 뜨더라”며 “SK텔레콤 홈페이지도 먹통이고, 통신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PASS)’도 먹통이다 보니 하는 수 없이 대리점을 찾아왔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전국 2600여 곳 T월드 대리점 가입자 2500만명을 대상으로 유심칩을 무료 교체해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5월 말까지 약 500만 개의 유심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심칩뿐 아니라 이심(eSIM·내장형 가입자 식별 모듈)도 교환받을 수 있다. 유심 교체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 하고,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등 등록된 간편결제 서비스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 화면 잠금 비밀번호 변경 등 보안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명당 전원주택 매매
전남 담양군 수북면 병풍산 자락
경치 최고, 공기청정지역, 평지

대지 704py 1층 주택 60py(최고급주택)
카페 및 부속건물 20py(잇발 100py,
트랙터, 비닐하우스 30py, 화장실 3개)
투자 및 숙박, 요양시설 용지 최고.

**매매가 18억(용지 11억)
인수가 7억**

010-3646-8700

先州日報 지국안내

북구
•동 광 209-1200 •문 흥 209-190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영 신 571-7558 •오 지 266-7001
•용 흥 433-1503 •우 신 433-1503

동구
•남 광 673-8836 •동 광 222-9054 •동 부 225-6001
•용 흥 222-9054 •용 흥 222-8171

남구
•남 광 673-8836 •백 안 651-1833 •봉 신 673-6836
•용 흥 675-68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은 천 376-7153 •치 평 376-6511 •봉 안 603-0311
•화 천 369-1625

광산구
•은 남 952-1687 •월 국 958-1920 •청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신 944-0444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 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 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